

절차 어기고 도지사 모교 체육관에 수십억

감사원, 투자심사 없이 50억 지원한 도에 '주'의 물류센터 건립 손실도 지적... 징계 등 25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가 원희룡 도지사의 모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로 수십억을 지원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물동량 부족 예상에도 경기도 평택항에 농수산물물류센터를 건립해 재정 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도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징계 2명을 포함해 주의 10건, 통보 13건 등 모두 2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밝혔다.

앞서 도는 2017년 3월 원 지사의 모교인 중문중학교 제2체육관 건립

사업에 사업비 50억원을 지원하며 특혜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사업비가 자체재원 부담 40억원 이상으로 재정투자사업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만 해당 절차를 밟지 않았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제주도는 이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주특별법에 따라 다른 학교에도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으며, 특정 학교를 위해 예산을 지원한 사실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도가 2013년

7월 48억3000만원을 투입, 평택항에 제주종합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재정 손실을 확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는 여객과 화물 수요 부족에 제주~평택항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며 물동량 감소가 예상됐지만 임차 방식으로 물류센터를 운영해 재정 손실을 냈다.

건립 이후 물류센터는 제주산 농수산물 물류와는 관계없는 농업법인 창고 등으로 쓰였고, 입주업체 4곳 가운데 3곳은 물동량 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물류센터 건립 후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평택항공사에 지급한 임차료(약 19억4000만원)는 입주업체로부터 받은 사용료(약 13억

9000만원)보다 많았고 누적 재정 손실은 약 5억4000만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사업목적에 달성하지 못한 채 재정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물류센터를 매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주도지사에게 통보했다.

이와 함께 도는 조례로 정하지도 않고 한시기구를 설치하거나 도의회에 사전 보고도 없이 소속 직원을 다른 기관에 파견, 공석인 자리에 전임 직무대리를 지명하는 방법으로 상위 직급을 과도하게 운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채권 시효가 지나 개발부담금 1억6000만원을 징수하지 못하는 등 채납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해당 공무원도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백귀기자 haru@ihalla.com

"재활용률 높여라"... 반입 검사 강화

서귀포시, 올해 연말까지 반입금지 품목 집중 검사 재활용률 60%로 상향 목표

서귀포시는 21일 늘어나는 재활용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향상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재활용 쓰레기의 반입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 매립장 소재 생활자원회수센터에 대해 반입 전차량에 대한 성상 확인, 반입금지 품목인 가연성·불연성쓰레기와 혼합 여부 등을 중점 검사한다. 검사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고, 반복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회차 및 반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2019년에 반입된 재활용 쓰레기 1만494t(일평균 28.7t) 가운데 혼합된 가연성·불연성쓰레기를 철저히 분리 선별한 결과 약 49%인 5360t을 재활용으로 매각해 약 8억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다. 재활용 품목은 PET, 병, 플라스틱, 고철, 폐지, 스티로폼, 비닐류 등이다.

올해는 반입량 대비 재활용률 6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5월 현

재 반입량 3692t(일평균 30.7t) 중 재활용률은 1797t으로 약 50%의 재활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배달음식과 관련된 재활용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음식물이 담긴 채 버려지거나, 음식물이 묻어 오염된 비닐류나 일회용품 등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이런 쓰레기들은 배출 전 음식물을 세척해 배출해야 재활용이 가능하며, 세척이 어려울 때는 가연성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조금더 관심을 두고 올바른 배출 방법을 지켜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투병 폐트병 별도 배출 시범사업과 재활용 도움센터를 활용한 특수시책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다. 올 2월부터 재활용도움센터 16개소에 전용 수거함을 설치해 운영 중이며, 5월 현재 약 1.5t의 수거량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빈 병 보증금 환부세, 캔·페트병 자동수거 보상, 소형 폐가전 무상배출제 등의 특수 시책을 운영해 자원 재활용에 앞장서고 있다. 김도영기자

저소득층 환자 교통비 지원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에게 교통비가 지원된다.

서귀포시는 올해에도 지역 내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등록 대상자로 희귀난치질환 및 암·신부전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18세 미만 질환자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진료일 또는 입·퇴원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일주일 이내의 탑승권·진료비 영수증·항공비 영수증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현영종기자 yihyeon@ihalla.com



우릿가시리 채취 21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해변 인근 바다에서 해녀들이 우릿가시리를 채취해 배에 옮겨 싣고 있다.

이상국기자

용담2·아라2·유수암 무분별 개발 막는다

도내 첫 성장관리방안 지역 제주시 내달 관리방안 고시

제주시가 개발행위 가능성이 높은 3곳을 성장관리방안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해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개발행위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용담2동

(25만㎡), 아라2동(42만㎡), 유수암리(49만㎡) 지역을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으로 지정하고, 하반기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에서 성장관리방안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의 기반시설과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

를 통해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성장관리방안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과 제주도의회 의견청취 완료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도 마친 상태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고시하고 7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내 도로선형에 대해 토주주들의 기부채납이 완료되는 노선에 한해 예산을 투입, 도로 등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항공복합 의무·권장사항을 준수할 경우 개발행위시 건폐율과 용적률을 취약지구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토주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주택경기 침체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주택건설 정책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가파·마라도에 마을기업 설립될 듯

가파·마라도에 마을기업이 설립된다.

서귀포시는 21일 가파·마라도 마을기업이 최근 진행된 제주자치도의 '2020년 마을기업 육성 공모 심사'를 모두 통과했다고 밝혔다. 두 곳의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통과하면 마을기업으로 최종 선정된다.

마을기업이란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가파도마을협동조합은 '청보리'와

'친환경'이라는 자원을 활용, 현재 게스트하우스·가파도터미널 카페·스넥바 등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마을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친환경 콘셉트의 무인카페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버려지는 보릿대를 활용한 친환경 보리쌀대를 개발하는 계획도 세워졌다.

마라도협동조합은 툷 크로켓·장아찌 등 툷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섬주민이 안내하는 해설프로그램(섬투어)과 함께 전기자전거 대여서비스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

현영종기자

제주시 도로점용료 25% 인하

제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도로점용료를 25% 감액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26개 읍면동에서 부과한 2875건의 도로점용료 15억 6000만원의 25%(3억9000만원)를 한시적으로 감액 또는 반환 조치할

예정이다.

감액 대상은 계속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있는 2020년도 경기분 도로점용료 납부 대상자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미납 점용료에 대해서는 부가액의 25%를 감액 고지하고, 이미 납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6월 중으로 환급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문미숙기자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그랜드보청기

가정의달 보청기 파격 대할인

보청기 전 브랜드 50~60% 대할인!!

샵출들 훈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렸수다!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업체

제주시 서귀포시 전지역 방문 관리 서비스

보청기 모든 제품 보상판매 서비스

※ 세계금연기념 청각장애 및 음연기 아신분들

금연카드 무료로 가정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금연파이프, 사탕, 가리, 구취제거제, 은단, 비타민)

NAVER **그랜드보청기**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064-725-9275

서사라사거리 동쪽 100m 행복방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회분)
- 궁천변이지
- 천천(가와다)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와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